

동광초 안덕영 육상 100·200m 2관왕

2011년 강원도소년체육대회 결과 ... 고성교육지원청 금메달 24 · 은메달 21 · 동메달 28개 획득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동해시에서 열린 2011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고성교육지원청이 종합 성적은 부진했으나, 태권도 등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에서 초등부 100명, 중등부 87명 등 총 187명의 선수단이 15개 종목에 출전한 고성교육지원청은 메달 집계 결과 금메달 24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28개 등 모두 7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태권도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해 양궁과 육상, 정구, 수영, 복싱, 유도, 사격 등에서 두루 금메

달을 획득하며 고른 성적을 보였다.

육상에서 동광초 안덕영은 100m와 200m 2관왕을 차지했다. 그러나 탁구, 테니스, 레슬링, 검도 등 4개 종목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금메달 획득 현황이다.

◆태권도 △동광초 김예지(핀급) △아아진초 강고은(페더급) △거성초 박주원(웰터급) △동광중 강승환(핀급) △동광중 함태운(플라이급) ◆양궁 △동광초 단체(마주호, 윤영수, 김예찬, 김은찬) △동광초 김예찬(개인 25m) ◆육상 △동광초 안덕영(100m) △동

광초 안덕영(200m) ◆수영 △고성중 윤민규(개인혼영 200m) △거진초 신시은(자유형 100m) △거성초 장상준(접형 50m) △거성초 장상훈(자유형 200m) ◆남자정구 △천진초(천용관 등 7명) ◆복싱 △고성중 임의진(웰터급) △고성중 윤수현(라이트밴텀) △고성중 함동규(라이트웰터) ◆유도 △간성초 장선우(53이하) ◆유도 △간성초 전운재(+65) ◆여자유도 △간성초 강윤아(53이하) ◆남자공기소총 △거진중 최원석(개인) ◆여자공기소총 △고성중 박효영(개인) △고성중 단체(함민주, 박화준, 박효영, 장혜림).

최광호 기자

“재경 거진중고동문 모여라”

2011년 동문체육대회 5월 1일 개최

재경 거진중고총동문회(회장 황관)는 오는 5월 1일 오전 9시 서울시 노원구 소재 경기기계공업학교 운동장에서 2011년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축구, 배구, 족구 등 체육행사가 진행되고 낮 12시 개회식이 열린다. 폐

회식은 오후 6시 진행된다.

황관 동문회장은 “동창군이 아무리 시샘을 부려도 이제 완전한 봄이 왔다”며 “바쁘시더라도 체육 행사에 꼭 참석해 동문들간의 우정과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문화관광해설사 · 안내요원 모집

고성군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고성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와 단체방문단 프리랜서 안내요원을 신규 모집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간봉사, 해양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5월에서 12월까지

하루 8시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고성군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도내 처음으로 단체방문 프리랜서 안내요원 5명을 신규 채용한다. 활동기간은 5월에서부터 8월까지며 관광통역안내원 배치가 어렵거나 관광성수기 때 운영하게 된다. 최광호 기자



미시령 옛길 자전거로 달린다

제6회 고성 미시령 힐클라임대회

고성군생활체육회가 주최한 제6회 고성 미시령 힐클라임 대회가 지난 10일 1,500여명의 선

수가 참가한 가운데 미시령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오전 9시 천진초

등학교를 출발해 성대리를 거쳐 미시령 정상까지 이르는 20km 구간에서 진행됐다.

경기 종목은 20km 사이클, MTB, 미니벨로 등 3개 부문의 개인 및 단체전과, 10km부분 MTB 초등부 외발자전거 개인전이 펼쳐졌다. 박승근 기자

22사단 21일 군악연주회 개최

육군 제22보병사단은 오는 21일 고성종합체육관에서 고성군민과 함께하는 군악연주회를 개최한다.

사단 창설 41주년을 기념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오후 5시 종합체육관 주차장에서 의장대 시범, 전투복 입고 사진 촬영하기, 무료 의료봉사, 건빵시식회, 안보사진 전시회 등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7시에는 종합체육관에서 사단 군악대의 군악 연주, 타악 퍼포먼스, 가수 아웃사이더 공연, 소프라노 김하나 공연 등이 열린다. 최광호 기자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기]

독립운동가 홍태식(洪泰植)

1917년 5월 30일 ~ 1945년 2월 6일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외금강면(外金剛面) 창대리(倉埜里) 30番地이다. 다른 이름으로(異名) 洪太植 사용하였다.

1940년 10월 고성군 외금강면 창대리에서 평북(平北) 정주(定州)에 거주하는 동지 5명과 함께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신동아동지회(新東

亞同志會)”를 비밀결사(秘密結社)하고, 이 운동을 함경남도(咸鏡南道) 삼수군(三水郡) 호인면(好仁面)에서 추진하다가 1941년 10월경 밀고로 일경에 피체

(被逮)되었다.

선생은 1942년 5월 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944년 4월 19일 출옥한 뒤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8.15광복을 앞에 두고 1945년 2월에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

을 추서하였다.

出典: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第 2卷, 光復會江原道支部, 1992年, p.514.

註: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